시론

문화관광부의 행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모든 종교인, 문화 예술인들의 관심을 모은 분야는 문화부의 개편에 관한 일이었다. 대통령도 유세기간 동안 한결같이 문화정책의 고양을 외쳐왔으니만큼, 가시적인 변화를 기대했던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느닷없이 문화관광부가 되었다. 경제통상, 건설교통, 보건복지 등 업무가 합쳐지면서도 상당히 동질적인 연계에 비해 볼때도 '문화관광'이라는 작명은 좋아보이지를 않는다.

인류공존의 공통분모 이젠 문화에서 찾아야

20세기는 '힘의 논리'가 지배한 세기였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 동서냉전, 그리고 작금의 경제위기 등 끊임없는 대결의 시대였다. 금세기 중반까지는 무력대결의 양상이었고 지금은 경제논리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총칼이 돈으로 바뀌었을뿐 그 속사정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다가오는 21세기는 명백히 문화의 시대가 되리라는 예측은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다. 왜냐하면 힘의 대결이 맞는 종착역은 공멸(共滅)이기 때문이다. 승자와 패자의 편가르기는 국가간의 무력대결로 압축되었고 오늘날은 선진국과 후진국이라는 편치를 낳았다.

정 병 조
〈동국대 부총장〉

이제 인류는 공존의 문제를 진지하게 논구하게끔 되었다. 이미 미국의 기업들 간에는 재구성(Re-Structuring)이라는 말이 보편화되고 있다. 여태까지 기업의 목표는 이윤추구였다. 그러나 이제는 더이상 그와 같은 목표설정이 통용될 수 없게 되었다.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그때 등장하는 필연이 '문화'이다. 인류의 공통적 선인자유·평등을 실현하는 길은 서로가 지닌 문화적 공통분모를 '나누어 가지는 일'일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의 문화정책은 보다 거시적이고 보편적이어야 한다. 단순히 문화재를 보호한다거나 국립박물관을 으리으리하게 짓는 일이 능사가 아니다. 국민들의 생활행동, 의식 모두가 문화적 감각을 지닐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

오래전부터 하바드대학에서는 건축철학(Philosophy of Building)이라는 전공학과를 운영해 왔다. 환경, 주변여건, 역사성, 전통미 등을 고려하는, 말 그대로 '집의 철학'을 모색해 왔던 것이다. 일본 교토에는 고층아파트가 없다. 기술과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그들이라고 주거공간부족이 없어서가 아니다. 전통과 문화를 온존하려는 나름대로의 문화의식 때문이다.

이제 한국의 관료·정치·경제인들도 그와 같은 거시적 안목을 지녀야 할 때이다. 그러나 문화관광부가 제 목소리를 지니려면 예산과 인력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어려운 여건일망정 문화관광부 종사자들이 그러한 긍지를 지녔으면 한다.

한국적 문화란 무엇일까. 깨진 토기조각을 치켜 들고 세계 제일을 말하는 것이 온당할까? 문화의 흐름 또한 물결같은 것이다. 저질문화는 고급문화에 흡수되기 마련이며, 전통문화는 끊임없는 도전에 흔들리기 마련이다. 우리의 전통문화는 불교이다. 유형문화재의 70%가 불교문화재라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적 정서의 밑바닥을 관통하는 불교적 정신이다. 우리가 세속오계를 초등학생들에게 가르치고 고려대장경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말하는 한국불교는 언제나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 여태까지의 문화정책은 하드웨어적인 발상이 전부였다. 그러나 앞으로의 방향은 그 내면의 세계, 즉 소프트웨어를 계발해 나가는 일이어야 한다.

신학전공한 장관 '집의 철학' 모색했으면

나는 문화관광부의 신임 장관이 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불교에 대한 몰이해가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점이 종교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타인에 대한 배려, 다른 종교나 문화에 대한 외경심리는 문화의식의 기본이 아니던가. 새 시대를 열어가는 문화관광부의 정책과 행보들이 이 메마른 대지와 생명들에게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서게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한다.

열린마당

불교출판계 위기 타개책

국내 출판업계에 불어닥친 연쇄부도는 불교출판업계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적 도매상 1,2위인 보문당과 송인서림의 부도로 막대한 피해를 입는가하면 종이값 등 출판비용의 상승으로 '출판=손해'라는 등식이 성립되기에 이르렀다. 교계출판사 부도는 물론 불교지식 인프라의 붕괴까지 부를 수 있는 현 위기상황을 헤쳐나갈 대안은 없는가. 출판관계자들은 유통구조 단일화, 출판전문화, 사찰도서관 확충 및 법보시 확대, 책읽는 풍토조성 등의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들 방안은 어떤 것들인지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최근의 출판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유통구조 단일화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사진은 침체된 출판시장을 북돋기 위해 설치된 영풍문고 할인매장.

유통구조 단일화로 운영비 절감

윤창화〈민족사 대표〉

현재 교계출판사의 유통구조는 소매점과의 직거래나 운주사 등 총판을 통한 두 가지 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독자의 방문이나 전화 우편주문 등을 통한 직접 판매, 법보시 판매 등도 20~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판매방법은 다양한 편이다. 이같은 유통구조는 출판사-총판-중간도매상-서점으로 이어지는 일반출판사보다는 훨씬 건실한 편이다. 그러나 운영경비 절감과 양질의 불서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유통구조 단일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 경우 불교소매서점은 물론 전국 소매서점에 불서를 공급하는 등 판매망을 확대할 수 있고 수금 배달 등 영업을 총괄할 경우 기획 편집에만 몰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일반서점에도 '불교코너'를 마련케 하는 영향력을 갖는 등 영업 및 포교적 측면에서의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단 유통구조 단일화는 기존의 유통구조를 하나로 묶는 형식을 의미하는 것이지 새로운 유통기구를 만든다는 것은 아니다.

단일화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각 출판사가 서점을 상대하지 않아 독자의 흐름과 시장파악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 지금과 같은 영세한 시장에서 과연 영업적 효과를 낼 수 있는지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찰도서관 확충 책읽는 풍토 조성

김형균〈불지사 대표〉

현재의 상황이 지금 당장 독자수를 급격히 떨어뜨리지는 않겠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2~3년 후에 현격한 독자감소를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 출판사가 책을 내지 못해 읽을 책이 없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다. 사찰도서관 확충은 이같은 위험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지금과 같은 현실에서는 다양한 출판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사찰도서관에서 불교관련 출파물을 흡수한다면 최근의 위기타개는 물론 불교출판문화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도심사찰의 경우 훨씬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제대로 운영만 한다면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책읽는 풍토조성 또한 사찰도서관 확충 못지 않게 중요하다. 이 부분은 출판사보다는 교계 언론매체나 불교계 지도자와 일선 사찰 스님들의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한다. 교계 언론매체에서 매년 종류별 계층별로 독후감 대회를 열어 시상을 하거나, 독서와 관련한 기획물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면 그 효과는 상당하리라 판단된다. 교계 지도층 인사와 스님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학술등 전문서적 출간 종단 지원

남동화〈불광출판부 편집부장〉

학술서적의 경우 출판사마다 내기를 꺼려하고 있다. 적자를 면할 수 없는 것이 그 이유다. 출판사는 기본적으로 영업성을 띠고는 있지만 지식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은 곧 불교지식산업의 황폐화를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각 종단의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각 출판사별로 학술 및 전문서적에 대한 기획안을 받아 이를 심사해 매년 한 곳씩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직접적인 재정지원 외에 불서를 일괄구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 경우는 독서인구를 늘리고 포교에도 일조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독서계층 다양화는 오랜 시간과 인내를 요하는 것이지만 불교중흥과 출판활성화를 위한 가장 바람직하고 확실한 방법이다. 이는 곧 포교활성화라는 시각으로 출판사뿐만 아니라 전 불교인이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다만 지금까지 펴냈던 어린이, 청소년 대상의 책들이 전문적으로 만들어지지 못했고, 대상 또한 어머니 어린이 등 두 세 계층으로 불분명한 경우가 있어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했다. 이런 점은 출판사들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보완이 가능하다.

경전·소설등 장르별 출판전문화

김시열〈운주사 기획과장〉

일반 출판사의 경우 종교, 학술, 경영 등 큰 영역에서의 세분화를 의미하지만 교계출판사의 경우 경전, 교리, 학술, 소설, 법어집 등 그 종류가 상당히 제한돼 있다. 따라서 좁은 시장속에서 전문화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다.

그러나 세계출판시장이 이미 전문화돼 있고 국내 출판업계도 본격적인 전문화에 착수할 것으로 보여 궁극적으로 교계출판사도 이에 대응하는 조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시장이 좁다고 해서 지금의 체계를 그대로 고수한다면 양질의 도서 양산과 효율적인 판매가 어려운 지경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

현재로서 가능한 방법은 출판사별로 각사의 색깔을 낼 수 있는 출판에 비중을 두는 것이다. 학술, 교리, 경전 등 어느 한 두 분야에 중점을 두되 그 외 수익성 있는 책을 발간하는 식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자는 것이다.

또 출판종류에 주부, 청소년 등 독자층을 고려한 특성화도 고려해봄직하다. 저자와 소재 발굴에 대한 출판사의 노력도 당연히 뒤따라야 한다.

최소한 현 시장규모의 몇배 이상 수요가 늘어난다면 출판전문화는 커다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출판사와 모든 불교인들의 이해와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출판업계가 맞고 있는 연쇄부도와 관련해 교계출판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위기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말한다. 언제 어떤 형태로 더한 위기를 맞느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최근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 2월말 국내 최대서적도매상 보문당과 송인서림 등 크고작은 도매상과 서점의 부도로 인해 교계출판사는 8억여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 또 올 1·2월 교계 출판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대비해 절반수준에 머문 상태며, 미리 잡아놓았던 출간계획을 대폭 줄이거나 무한정 보류하는 등 위기의 중심에 놓여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출판관계자들은 이같은 상황이 올해 말까지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이경우 불교지식산업의 편중과 퇴조를 동시에 부르는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최악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통구조 단일화, 출판전문화, 사찰도서관 확충, 종단지원, 책읽는 풍토조성, 독서계층 다양화 등이 제시되고 있다.

불교출판계의 현실

도매상 부도여파 피해 속출 1·2월 출판량 작년 절반

유통구조 단일화와 출판전문화는 향후 국내출판계의 보편화된 형태로 자리잡을 전망이어서 교계도 이에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달렸냐는데 있다. 이에 대해 관계자들은 "빠를수록 좋다"고 말한다. 사찰도서관 확충과 책읽는 풍토조성, 종단지원과 독서계층 다양화는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손쉬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여론이다. 다소 시간이 필요하고 불교계 전체의 노력과 이해가 뒤따라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기는 하나 포교차원에서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일석이조라는 평가다.

법정스님이 신도들에게 하나의 책을 권하고 이를 읽고 다음 법회에 참석토록 하는 것은 포교뿐만 아니라 책읽는 풍토를 조성하고 있는 것은 우리 출판문화의 풍토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범사례다.

한명우 기자

韓國佛教 海東宗 創宗公告

宣布文

佛教가 우리나라에 傳해온 이래로 昨今과 같이 많은 分派가 일어 나기는 처음이다.
우리는 護國佛教의 精神으로 通佛教를 實現하고 一佛第子로 和合과 佛教界의 새로운 발전을 위하여 百年大計인 教育宗團으로 설립하였다.
우리는 석가세존의 一乘圓音의 教義와 元曉聖師의 海東教學을 이어받아 佛祖의 慧命을 이어가려는 時代的 使命感과 大願力으로 清道를 修練硏磨하는 길을 整備하며 度生의 門을 활짝열어 教育布教의 使命을 다하려는 것이다.
宗徒 대중은 이 헌장을 준수하며 海東精神을 生活化 現代化 大衆化의 길위에서 菩薩道 精進의 서원을 굳게 다짐하는 동시 세계평화와 불국토 건설에 이바지 하기를 바란다.

宗正 李耕牛 總務局長 金道眼
顧問 李昔泉 教育局長 方覺圓
顧問 金虛無 財務局長 辛正一
宗會議長 元慧牛 企劃局長 金道峰
元老院長 裵西光 總務課長 李道碧
總務院長 張慧惺 財務課長 金報蓮
教育院長 金九潭 事業課長 慶道慧
監察院長 姜天江
(部長級은 未結定함)

(한국불교해동종인)
(종정직인)
(해동종계인) (총무원장직인)

▣ 해동종유래 : 佛紀 2531년 9월 5일
▣ 창립선포일 : 佛紀 2541년 11월 11일
▣ 통합공고일 : 檀紀 4331년 3월 26일
▣ 총무원주소 : 忠北 忠州市 利柳面 長城里257-8 番地
▣ 전 화 : 0441-853~3168, 3169
▣ 팩 스 : 0441-853~3169

海東宗刹 祥瑞山 慧圓精舍
韓國佛教 海東宗 總務院

護國安民 傳法度生
및 創宗 大法要式

귀의 삼보하옵고.

圓覺山中 生一樹 開化天地 未分前

새로이 설립도 아니요. 파벌도 아니요. 추세에 휘말림도 아니라. 본래자리를 이름하여 非青非白이라. 그것을 이름하여 海東이라고 합니다.

百年大計의 教育爲主로 창종하는 해동은 불교사상을 바로 알고 그것을 실천하고자 속됨에 물들지 않는 동쪽바다에 태양이 떠오르듯 새로솟는 활기찬 햇살을 삼천대천세계에 비치고자 합니다.
본 해동불교교육연구원은 호국안민과 불교 근본교리를 奉體하고 전법도생의 대승불교 이념 실현을 목적으로 년중행사로서 금년 제2회 법요식을 맞이하여 창종법회와 李耕牛 大宗師 宗正推戴 대법회를 奉行하고자 합니다.

● 일 시 : 불기2542년 3월 26일 오후 2시
● 장 소 : 해동불교전문대학 (혜원정사)

韓國佛教海東宗
(해동불교 교육연구원)